土地에서 産金事業으로 東拓이 積極進出

斗升、永興、栗浦金山等採掘 鑛業金融方面도 着手

동척회사(東拓會社)에서는 최근 총독부당국의 적극적인 산금정책(産金政策)에 따라서 적극적 활동을 개시하게 되엇다고 한다.

즉 동회사에서는 목하 시영인 두승금산(斗升金山)은 四월末부터 채굴을 하기위하야 정련설비(精鍊設備)에 착수하엿는데 이미 완료하엿으므로 목하 시굴(試掘)중이라는바 오는 五월부터 본격적 조업(操業)을 시작한다고 한다. 그런데 동금광에서는 매월 一만원의 이익은 잇을터이라하며 또 영흥금산(永興金山)도 정련설비가 완성되어 목하 순조로히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잇다고 한다. 또 휴업중에 잇든 율포금산(栗浦金山)도 방금 탐광을 진행중이라는데 멀지아니하야 채굴에 착수할 예정이라하며 광업부(鑛業部)방면에 잇어서는 작년말부터 새로히 금광을 시작한것은 대흥(大興) 금평(金坪) 온천(溫泉)등의 세곳으로 세곳 전부 채굴설비는 완료하엿으므로 제二기 계획에 착수하야 증산을 기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외에도 각 방면에서 금융을 의뢰하는것이 많으므로 동회사 광산과(鑛産課)에서는 조사를 진행할 작정이라는데 그결과는 대출고(貸出高)에 잇어서도 상당히 증가할 모양이라고 한다.

電柱와 衝突 三名을 重輕傷

운전수 용산서에서 인치 취조

無謀한 無免許運轉手

죽첨정(竹添町)三정목 七十八번에 잇는데 조명이 다섯이 집단적으로 청이四년 양우가 오개월이 언도되엇다.

면허장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세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고 사고가잇다. 시내 남미창정(南米倉町)一三四번지 경성모터쓰회사 수리공 서봉진(徐鳳鎭)(二〇)은 二十四일 오전八시二十분에 동회사 전무취체역의 사남 신(伸)(三)을 운전대에 앉치고 자동차를 몰아 삼판통(三坂通)六三번지 부근을 질주하다가 전신주에 충돌하야 부근에 잇든 임윤백(林尹伯)(三八)과 주소부정 지게군 김치옥(金鎭玉)(×)양명에게 경상을 당하게하고 조수대에 태웟든 전무의 아들은 머리에 중상을 당하게 하엿는데 운전수 서봉진은 방금 용산서에서 엄중한 취조를 받고 잇는중이라고 한다.

滿鑛工務員被殺 【간도】

메이데이 "準備中"의 青年五名을 檢擧

永登浦 閔某의 집을 捜索 五六種의 印刷物도 押收

二十二일 오후 三시경 시내 동대문경찰서에서는 모사건의 단서를 잡엇는지 재하(齋賀)형사부장 이하 수명의 형사대가 영등포(永登浦)에 사는 민모(閔某)의 집을수사하야 비밀출판물인 「□□□」 등 六종을 압수하고 전기 민(閔)모를 비롯하야 四五명을 검거하고 서 엄중취조중이데 사건의 내용은 절대비밀에 부치나 탐문한바에 의하면 전기 민모는 시내 모공장의 로동쟁의시에 관계하엿을 이 잇는사람으로서 「메이데이」에 관한 준비행동의 혐의인것이라하나 취조여하에 따라서는 그범위가 의외로 확대될는지도 모른다 한다.

百草溝集團村 共黨包圍攻擊

응전一시간만에 격퇴되어 共黨側十餘名被殺

경무국 착전에 의하면 간도백초구 집단부락(百草溝集團部落)의 경관 五명과 자위단 二十三명은 二十一일 오후十一시三十분부터 二十二일 오전四시동안에 三회에걸하야 약백명의 공산당(共黨)에게 포위 공격을받엇다.

공산당은 一백미터의 거리까지 접근하엿으므로 곳 응전하야 一시간만에 격퇴하엿는데 그전중에 민주경관 二十八명은 숙사(宿舍)안에서 원동사격을 가하야 공산당은 十여명의 사상자를 내이엇고 관헌대측은 아모피해가 없엇다 한다.

「電話至急」三百餘 금년도의 전화가설개통신청(電話開通申請)은 가보한바와같이 二十三일부터 경성중앙 전화국(京城中央電話局)에서 접수를개시하엿는데 전수개시의 첫날인 二十三일에 접수한 신청서수만도 三백五十여건에 달하다고 한다.

이는 종전에 一일평균 二、三十건에 비하여는 十여배의 따기특의 것으로서 이의 접수자는 금월二十七일까지에는 앞날이 아직 六、七일이 남어잇는만큼 저어수천건에 달하리라고 예측된다고한다.

이상은 결국은 일반의 경기가 매우양호하여가는 경향으로 이번에 가설개수는 본국、분국을통하야 겨우 一백八十개의 예정이므로 그방지청자의 수요를 다 수응할수없는바개로 내부선을 추첨에 의하야 결정하리라 한다.

兄弟窃盜 兄은四年懲

형제가 한가지로 법정에서 체형언도를 받고 끌려 나간일이 二十四일 경성지방법원 형사법정

十年間工鑛業消長

工場·鑛山千四百個所 勞働者九萬五千

五百卅九個所에 萬七千名增加 北部엔 鑛山·中部엔 工場

총독부 사회과(社會課)에서 최근 조사한바에 의하면 十인이상의 노동자를 사역하는 공장은 一천一백九十九개소로 노동자 六만五천三백七十四인이오 광산은 二백十三개소에 광부가 三만九十三인으로 공장과 광산을 합하면 一천四백十二개소에 총노동자수가 九만五천四백六十七인에 달한다.

이것을 전회인 대정十一년七월 현재의 공장수 六백六十四개소에 노동자 四천八백四十三인에 비하면 공장이 五백三十五개소 노동자 一만七천三백三十一인의 증가를 보이고 잇는바 이것을 매년평균으로 본다하면 一개년간 공장이 五十九개소、노동자가 一천九백二十六이씩 증가한 세음이다.

공장은 경기도의 二백六十一이 제一많고 전남(全南)의 一백五十七、경남(慶南)의 一백四十이 그다음이며 함경북도의 十四가 제一적은편이다.

광산은 평안북도(平北)의 三十六이 제一많고 함경남도의 三十三과 강원도(江原道) 二十九가 그다음이며 전남의 四가제一적은편인데 대체로 공장은 중부와 남부에많고 광산은 서부와북부가 많은편이다.

그다음 산업별(産業別)로 본다 하면 공장중에는 식량품제조업四백七十九가 제一많은편은 전수요의 三十九퍼센트를 점령하고 방적공업이 一백四十 인쇄제본업 一백十一이 그다음이며 전기와 와사가 十四가 제一적다한다.

광산중에는 금은광(金銀鑛)이 제一많은편으로 총광산의八十퍼센트며 흑연(黑鉛)광이 제一적다한다.

最高賃七圓 最低賃六錢

印刷工이 ― 最高賃

이들공장과 광산의 노동자 임금을보다하면 어느것이나 일본사람이수위요 그다음이 조선사람이며또그다음이 중국사람의 순서다.

그러나 간혹광산에 잇어서는 중국인이 조선인보다 더받는래가많다. 임금의 최고액은 인쇄공이 七원十五전(인쇄공)이요 최저임금은 조선사람유년 여공의六전(그것은 조선사람이 여공의최고임금은 五원이요 최저는여시소년사람유년여공의 七전이라 한다.

少年窃盜

二十三일 시내본정경찰서원이 전의일부터 신문에 맞지안는 물건장을하고 주장숙이이 십한 한치홍(韓致洪)(一七)은 이치하야 엄중취조하인 결과 절도의상습자로서 시내 주교(舟橋) 홍형표(洪衡杓)씨의 교원 공립보통학교 졸업 중시계를 비롯하야 지수로十六건에 一백여원에 달하다한다.

衡平全體大會

廿四일경운동서

형평사(衡平社) 제十二회 전체대회는 二十四일 오전十一시부터 시내 경운동(慶雲洞) 천도교기념관(天道敎紀念館)에서 개최되엇

家族的寄宿舍式으로 實際農業教育實施

보교졸업후 二三년 경험자에게 現存의 六十農補校에

동양척식회사 충청도대책조합(東拓忠淸道大村組合)은 흥사(興事)등의 一부 직무를 다하여 그아우 ... [illegible]

보통학교 졸업생을 수용하야 실제농업교육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농업보습학교(農業補習學校)는 종래로 학교식 교육이 되어서 본래의 목적한 효과를 내지못하야 이제도의 개선안을 학무국에서 오래 연구중이엇던바 이 개선방법을 지난 도지사회의에 자문하야 역시동의를 얻게되엇는데 그개선안의 요점은 다음과같다한다.

종래의 보습학교의 방침은 실제적인 농업 교육을 양성하는것보다 보습학교 부치어 독립적으로 방침을 수립하게하고 하교를 一개가족적 기숙사식으로 하기로 하엿다.

즉 학생은 몇명씩을 가지고 한가족으로 집단을 삼아 이것을 경영할 생도로 보아 농가와같이 기숙케하고 또 거기에 수용하는 이방 보통농가가 경작하는정도의 전답을주어서 한개의 소작인으로하고 부업으로는 도야지、닭등을 사육케하기로 되엇고 또 그생산물을 공동판매하는등 가에서하는 일체의일을 이 집단생도에게 행하게하기로 되엇는데 여기에 드리는 정도는 보통학교 졸업후 二三년간 실제경험이잇는사람을 수용하기로되엇다.

현재 六十에 가까운 수를 가진 농업보습학교의 이방침의 시실후의 추이는 심로 주목되는바라한다.

第一、二、三種의 新所得稅를 五月一日부터施行

세무기관에 따르는 모든 법령은 이미 각의에서 결정을보아 명 二十五일 추밀원의 어자순의수속을 마치기로 결정되엇다.

이에 따라 인사의 이동이 행하게될터인바 이에대한것은 화산(丸山)인사과 이사관이 원안을 가지고 도동하야 절충중이다.

오는 二十六、七일 경에는 최후의 결정을지어 五월一일부터 발령이 될터인데 제一、제二、제三종소득세(所得稅)도 五월一일로 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되어 재무(財務)당국에서는 각방면에 시행할 준비를 통일하는 일방 개정소득세령과 동시행세칙 발표등에 관한 준비에 분망중이다.

제二종 소득세는 본년도는 五월一일이후 지불의 공사채 이자에 대하야 파세하고 제三종소득세에 대하야는 반액을 파하기로 되엇는바 제三종세는 세무기관 정비후 소득조사 기타파세준비에 시일이 걸리므로 실제의 증세는 九월에 되리라 한다.

天理教布教師 外套窃盜

작二十三일밤에 종로서 사법계에서는 부내 종로통에서 천리교(天理敎)의 포교사로 절도상습자 一명을 체포하엿다.

그는 부내죽첨정(竹添町)三정목의 송시형(宋時衡)(三〇)으로 그는 천리교의 포교사를 기화로 지

函館災民救濟義捐

廿三日本社接受分

累計金 七百五十二圓 九十錢也

▲一金三圓三十錢也 京城府樂園洞五三 鍾路院及明倫學院學員一同

東京留學코저 食刀强盜질

海州强盗瑞興서被逮

【해주】 지난二十二일 오전一시경에 해주읍남본정(海州邑南本町)二六四번지에서 잡화상김세영(金世榮)방에 복면하고 一척가량되는 식도를 휴대한강도一명이침입하야 점원 고진호(高眞浩)(二七)을 겁박하고 점원의 수중에들어잇는 현금三백원과 금고에든 당시계、비녀、지환등 시가六백여원 도합九백여원어치를 강탈하야 가지고 종적을감추어 버리엇다는데 이급보를받은 해주경찰서에서는 엄(嚴)사법계주임을 비롯하야 서원총동원으로 비상수배를하고 범인수사에 착수하엿든데 범인이해주동차부(海州自動車部)에서자동차를 타고 서흥(瑞興)방면으로 도주한 사실을알고 곧 서흥서(瑞興署)에 수배함하야 범죄 발생후 三시간만에 무난히 체포하야 해주로 압송하엿다는데 범인은 수일 전까지 전기상회에서 점원으로잇든 해주읍 서영정(海州邑西榮町)一三三번지에 거주하는 정용섭(鄭龍燮)(二〇)으로 유학길될적으로 그는 동경으로 유학할 작정이엇으나 여비가 없어서 그리한것이라고 하는데 방금 엄중히 취조중이라고한다.

天氣豫報

나十六일 오후一시경에 종로(鍾路)六정목 一백九十七번지고고(高)의 집에 침입하야 외투등을 절취하엿다는것이다.

低氣壓은 日本海 中部와 九州에 잇어 共히 東近하고 잇고

高氣壓은 北中國에서 점점 東方面에 擴張하고 잇다.

來日은 日氣 좋다.

晴一時曇

昨日氣溫 最高二十二度四 最低 大度八

檀君陵修築誠金

【廿三日委員會接收分】

江東郡鳳津面中端里李應善一圓 ... [illegible]

賃金引上、待遇改善 片倉勞働者罷業

一日의 賃金卅五錢을 要求 警察은 廿名을 檢擧

【영흥지국전보】 二十二일 편창(片倉)회사의 영흥잠종제조부(永興蠶種製造部)의 로동자 五十명은 일급이상과 대우개선을 요구하면서 동맹파업을 단행하엿는데 이 급보를 접한 영흥경찰서에서는 즉시 출동하야 동일 오후三시경 그중 二十명을 검속하고 엄중히 취조하는 중이다. 일급은 하로에 三十五전을 요구하여 회사측에서는 즉시 五전을 인상하엿으나 이에 만족치않고서 사건을 이르키게된것이다.

竹添公普校 十週年記念

죽첨공보교(竹添公普校)에서는 二十五일 오후一시 창립十주년기념식을 거행하는데 겸하야 후원회에서 十주년근속교원 표창식도 거행하리라고한다.

전조선각지에서 모은 대의원수는 약六十명에 달하엿다 금번 대회에서 상정될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고한다.

一、支部再整理에關한件

二、食肉價格에關한件

三、綱規差別에關한件

四、地方爭議에關한件

五、地方大會召集에關한件等九件

籠球戰線統一을劃策 綜合選手權引受?

延專主催中等大會는承認 籠協理事會決議案件

朝鮮籠球協會理事會는 二十三日午後八時 同會事務所에서 열고 理事八人이 모이어 다음의事項을 討議하엿다고 한다.

一、四月에開할 定期總會는 延期하야 追後適當한時期에 臨時總會를 열기로하고 우선 團體會員募集에 盡力키로함

二、協會事業으로 以前協會가 行하여오던 中等學校及 俱樂部聯盟戰은 繼續하야 開催키로하되 時期는 五月九日부터 向一週日豫限하야 擧行키로하고 中等部에잇어 技術向上本位로 이번부터는 實力대로 甲、乙兩級으로 分하야 行함(參加團體八團以上인때부터)聯盟戰의 成績을보아 甲級의最下位팀과 乙級의 優勝팀과 對抗戰을 行케하야 그勝者가 甲級에敗者가 乙級으로定함

實力審査는 委員을 選定하야一任키로함

三、延專主催中等學校大會는 承認키로함

四、協會規約에 依한 全朝鮮綜合選手權大會는 그간 朝鮮體育會와 中央Y·M·C·A가 共同主催하여오던 그大會를引繼받어 本協會에서 開催키로 內定하되 關係團體의 引繼交涉은 常務가하기로함

大會開催日字는 六月初旬으로 豫定함

五、次回理事會는 聯盟戰終了日에 開함

捧高跳西田選手 極東大會出場辭退

【聯合東京電話】 今年極東올림픽大會에 出場할豫定이던 棒高跳의西田修平選手는 一身上의 형편으로 選手를辭退한다는 聯盟에게 申請하기로되엿다.

山本博士에電報 【電通東京電話】 旣報西田修平選手로부터山本忠興博士에게 보낸 電報電文은 다음과 같다.

여러가지로 考慮한結果 明朗한氣分으로 大會에 參加할수없음을決心하고 今夜 選手辭退의電報를 山本氏에게 發하엿다。先生의 御賢察을 乞한다。詳細는 多田을 通해傳한다.

陸聯主事談 西田選手의右通牒을 받은 陸上聯盟에서는極度로狼狽하야 對策을 講究中인데 이에關하야 陸上競技選手의總監督 益谷氏는 말하되

나는 아직正式으로 神田君으로부터 西田選手의 辭退를듣지못하엿다。아마個人의意思일것이므로 其他選手의出場에는 何等變動이없으리라고본다。나도下阪하야 西田君의 慰留에努力할터이다.

慶南道路賦役人夫 点心携帶는不過三割

長長春日에 缺食人夫도 多數

道路品評會가 낳은 慘狀

【마산】 경남도 토목과에서 금년 일제히 도내 중요도로 품평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하야 방금 각 군에서는 경쟁적으로 군민에게 부역을 실시하야 대대적으로 도로 수축공사중이라는데 마산 토목관구 一부 四군(馬山、昌原、咸安、固城、統營)에서도 二十一일부터 二十四일까지 四일간 도로 수선사를 일으키고 준공이 심하야 금월 초순부터 매일 수천명 농민이 도로 개수부역에 사용되어 왓다 한다。 출역인부는 대개가 춘궁에 절량 농민들로 三、四월 기하로 점심을 가지지 못하고 조석도 변변히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젊은부녀들까지 출역하야 손에 피가 흐르도록 도로재갈(砂礫)을 줍는 정경이라 한다。 이 못보는중 매호 七、八일 내지 十三、四일의 장기 고역을 강행함으로 그날그날 벌의 품파리로 연명하여가는 그들에게는 설상가상으로 더욱 비참한 정경이라 한다。

그중 목격인의 사실은 三、四십리 되는 원로에서 새벽 六시부터 오후 五시까지 十二시간을 고역하는 인부중 점심을 가지고 오는 수는 二、三할에 불과하고 그 외는 하루의 점심도 받지 못하고 굶고 일하다 쓰러지는 자도 잇엇다 하며 七、八세 전에 달한다 한다。

高城負債額 五十七萬餘圓

【고성】 강원도 고성군(高城郡)에서는 지적경쟁 농촌진흥운동에 대하야 갱생부락 설치자료로 군내 농가의 부채상태를 조사하엿는데 그액은 五十七만四천 八백五十六원에 달하며 一년간의 이자만이 十一만 四천九백七十一원으로 一년간 전농가호수 九천五백九十五호에 나누어보면 一호당 十一원八十전에 달한다 한다。

順天金組書記가 現金萬圓橫領逃走

三월十五일 일이 인제 발각돼 各處에 手配코 嚴査中

【부산】 지난 二十一일 전남 경찰부에서 각지에 통첩한바에 의하면 전남순천금융조합 외동리(順天邑外東里)에 현주를 둔 순천금융조합 서기 김재모(金在模)(二一)는 지난 三월十四일에 동조합에서 연합회로 보낼 소절수 一만원을 절취하야 그이튿날 十五일에 광주에 잇는 식산은행 지점에서 현금을 찾어가지고 도주한 사실을 최근에 발견하고 범인이 잡힐만한 곳이라고 인정되는 경성 평양 부산 도쿄(東京) 등지에 지급수배를 한것이라 한다。

얼마전에 서주에서 서기가 八천원을 횡령 도주한 사실이 잇고난 다음에 또 이러한 사건이 생기어 一반 조선인 금조서기들에게는 비상한 악영향이 밋치게 되리라고 한다。

精神病者自殺

【이원】 이원군 서면 문평리(利原郡西面文坪里) 강진복(姜振福)의 아들 영길(永吉)(二一)은 八년전부터 정신에 이상이 잇어 지금까지 고생하든중 물에 빠저 죽겟다고 하더니 지난 二十二일 오후一시경에 자기집 근처 우물에 빠저 무참히 죽엇다고 한다。

慧星幼稚園 同情金이 遝至

【개원】 만주 개원(滿洲開原)에 잇는 개원 혜성유치원은 유지하여 나가기가 매우 곤난하게 되엇든바 동 유치원의 유지책을 강구코저 후원회를 조직하고 그 대회석상에서 二백여원의 보조금이 들어왓다 함은 당시 보도한 바와 갓거니와 그후에도 당지 一반인사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동정금이 답지하야 동유치원의 유지책은 매우 용이하여젓다 한다。

同情金出捐者氏名 ▲朴官陽十五圓▲鄭榮俊、金尙郁各十圓▲金民華、鄭麒默、朴基裕、李文範、金丁濟、李泰植、金昌烈、朴楷慶、李俊相、張奇輝、李東熙、文益守、金在鎬、朴基贊、鄭道一、具錫吉、李東煥、金俊衛、李俊寬各五圓▲金正洛四圓▲李芝順、金貞淑、尹秉燦、崔成武、鄭殷三、金永鳳各三圓▲鄭九三、高德瑞、朴麟興、李鍾桂、金炳禧、李壽範、李尙植各二圓▲蔡萬寶、金元經、李漢國、韓炳轍、許秉暢、李成春、金鍾聲、鄭元熙、咸性直、朴敬夏、李相允、金成律、朴魯在各一圓

清津靜山學院의 姜昇熙氏

三萬圓을騙取한 산송장保險魔

관계자 八명을 전부검거하야 新義州檢事局에 送致

【신의주】 보험사기파(保險詐欺派)로 일본은 물론 조선에까지 그 여명을 날리다가 조선의 북단 신의주에서 철로의 이슬로 사라진 반상(坂上)에 지지 않게 三대생명보험회사를 사기한 一단 八명이 초산(楚山)경찰서에 검거되어 취조를 받든바 지난 二十三일 신의주 검사국에 송치되엇는데 그들의 주요성명은 다음과 같다。

▲奉天西塔大街三丁目 張珍淸 ▲同上 張珍淸의 妻 金○○ ▲楚山郡楚山面西部洞 金炳龍 ▲楚山郡楚山面 金秉豪 ▲楚山郡楚山面 金文杰 ▲同上 張珍淸의 兒 ▲慶北安東郡 (未逮捕) ○○○

동사건의 주모자 장진청(張珍淸)은 소화六년여름 초산군 초산면 성서동(楚山郡楚山面城西洞)에 잇을 때에 수취인 장장선의 명의로 일본(日本)생명보험회사에 二만九천원 동해(東海)생명보험회사에 一만원, 간이(簡易)생명보험에 四백원의 보험가입을 하엿섯는데 동년말에 이르러 경제곤란에 빠지게되매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밑에서 김병룡(金炳龍)과 김병호(金秉豪)와 파상의하고 소화七년三월七일 위원(渭原)에서 설매를 타고 압록강(鴨綠江)방상으로 초산(楚山)에 향하다가 어름이 꺼지어 빠저 죽은것처럼 꾸미매 장진청의 채권자인 김문걸(金文杰)은 자기의 채권을 받을려고 전기 三개보험회사에 가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합계 三만六천四백四十二원八十전을 찾아잇엇다고 한다。

장은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착착진행되는것을 보고 잇다가 김문걸의 손에 돈이 들어온것을 알자 이때까지 그가 죽은줄만 알고 잇든 처와 김문걸앞에 나타나 九천원을 받아 가지고 봉천으로 도망하야 「산송장」의 생활을 하고 잇다가 최근 발각되어 초산경찰서에 잡히게 된것이며 기타 사람들은 그로부터 살아잇는 것을 세상에 감추어달라고 돈으로 입을 막히엇다고 한다。

妾의排斥받고 妾장모打殺

그우에방화까지해 尙州郡上縣里慘事

【대구】 경북 상주군 화서면 상현리(尙州郡化西面上縣里) 박三산(朴三山)(三○)은 二十一일 오전八시경 금년七十三세되는 첩장모를 때려죽이고 집에 불까지 노앗다고 한다。 문경군 동로면 석항리 김분남(粉南)(二○)이를 첩으로 동거하야 왓는데 얼마전에 분남의 배척을 받아 못살게되엇다 한다。 그리하야 여자의 배척에 분개한 남어지 분남의 친모 강(姜)씨(七三)가 배척하라는 교사를 하엿다고 몽둥이로 장모되는 전기 강씨를 때려 죽인후에 처가집에 방화까지 하엿다 한다。 이에 소관경찰서의 활동으로 현장을 임검하고 곧 범인을 체포하야 취조중이라 한다。

河豚먹고中毒 漁父兩名慘死

◇莞島近海의慘狀

【광주】 하돈(河豚)으로 요리를 만들어먹고 두명의 어부가 무참히 죽어버린사실=완도군 완도면 죽청리(莞島郡莞島面竹靑里) 어부 박정식(朴正植)(五○)이와 나내리(羅內里) 하야인조(下野仁助)(六○) 두사람은 지난十九일 그들 근방 해중에서 낙송내리고 그물친후에 밥을지어먹으면서 하돈(河豚)으로 반찬을 만들어먹고서 중독(中毒)되어 신음하다가 발동선(發動船)을 빌려타고 완도읍(莞島邑)으로 돌아오는중 박정식이는 절명되엇으며 하야인조는 읍내까지와서 죽어버렷다고 한다。

麗水裁縫講習

【여수】 성가—회사주최와 동아(東亞)조선(朝鮮)양지국후원의 양재봉강습회는 오는二十六일부터 五일간 여수청년회관에서 개최한다는바 강사는 조용자(曹容子)여사이며 회비는 二十전이라 한다。

新溪胎峯里의大火 兩日間十一戶全燒

二十五호 동리중에서 이참경 損害와原因을調査中

【신계】 황해도 신계군 신계면 마산리 태봉동(新溪郡新溪面馬山里胎峯洞)에서는 지난二十일 오후四시경부터 동리 김리순(金利淳)집에서 불이일어나 화세가 대단하엿으나 우물이 고갈하엿으므로 진화를 못하고 六호를 연소하고 겨우 진화되엇는데 그이튼날인 二十一일오후三시반부터 동리 이덕순(李德淳)집에서 또다시 불이 일어나 때마침 부는바람을 조차 맹렬이 붓기시작하므로 급보를 접한 신계경찰서에서는 소방조원을 자동차에 분승하고 모라가서 필사적 활동으로 五호만을 전소시키고 동일오후七시경에야 겨우진화하엿다 한다。 전기발화원인과 피해액은 목하 조사중이라는데 이같이 대화를당한 참상은 눈으로볼수 없다하며 피해자의 씨명은 다음과 같다 한다。

廉龍德、金宗鎬、鄭正模、金道泰、李聖信、金利淳、李七星、李和實、李德淳、無名氏

醉中에殺人 사소한말성으로

【부산】 지난二十三일오전四시경 부내 보수정(寶水町)二정목 ○○가집에서 술먹든친구간에 힘세문제가생겨 말성끝에 살인한일이잇다。 대신정(大新町)二七 최남수(崔南守)(二○)가 경부선산 ○○(?)를 이세가하야 조롱비슷하게 말한것이 발단으로 최와 ○○○가 협력하야 최남수를 거리 바닥에 서부수남리하야 인사불성이 되어 부근수천병원에 입원하엿으나 즉시 절명되엇다 한다。 부산서에서 최남수외二명을 검거하야 취조를하는一방 동일오후一시에 사체는 해부를하엿다고 한다。

尙州邑內에 強盜가出現

경찰은 팔방으로 수사개시 公醫家서現金奪去

【상주】 경북상주군 상주읍 서정리(尙州郡尙州邑西町里) 공의 지방승부(公醫志方勝夫)씨집에 지난二十二일 오전二시반경 강도一명이 침입하야 현금 十六원을 강탈도주하엿다는데 이급보를 접한 상주경찰서에서는 즉시 비상선을 늘리고 범인수사에 노력중이든바 동일오전八시반 본정 나동면용포리에서 절도三범 이우석(李又石)(二○)을 체포하야 엄중 취조중이라 한다。

本報讀者慰安 野談會盛況

【홍원】 지난二十一일 오후八시二十분부터 읍내 상무회관(商務會館)에서 독자위안야담회(讀者慰安野談會)를 개최하엿는데 연사 윤백남(尹白南)씨가 (秘山朝秘話)라는 연제로 무시간 동안이나 자미잇게 이야기하엿는데 五백여명에 달하는 청중은 처음으로 듯는 야담이라 극도로 긴장한 가운데 숨소리차 죽여가며 조용히 듣든중 가다가 폭소성이 장내를 진동하엿다。 야담회는 동일밤十시반경에 무사히 끝을 맛치엇다。(사진은야담회광경)

蔚山殺人強盜 犯人五里霧中

혐의자로 十여명 검거취조 警察은血眼으로活動

【울산】 울산군 범서면 중리(蔚山郡凡西面中里) 김경렬(金慶烈)이가 지난十九일 오전에 가젓든돈 七十원을 빼앗기고 예리한흉기에 맞어 참살을 당하엿다함은 기보한바 인데 그뒤 그사건의 범인수사경로를보면 이러하다。

소관울산서는 물론 경남경찰부가 각지에 지급수배를하고 검사국에서는 전야검사가 二十一일에 현장에서 시체해부를한후 一방으로 범인을 잡기위하야 경찰은 수상한사람은 닥치는대로 검속하야 엄중히 취조하여오는데 현재유치된 혐의자만 피살자의 인척인 조남규(趙南圭)외十여명이나 되나 진범을 二十三일까지도 찾지못하고 형사대는 허둥지둥하며 갈피를잡지못한다고 한다。

범행한전후경과는 장소는 산중 으슥한길가이고 그부근에는 예리한 낫(鎌)한자루와 지개하나가 허터저잇든것을보아 범인은 확실이 산중에 나무하러갓든자가 불의 행동을감행하고 교묘하게 자최를 감춘것같다고 한다。

自轉車老婆轢死

【용궁】 지난 十五일 오후 二시경에 경북 예천군 개포면 입암리(醴泉郡開浦面立岩里) 二등도로에서 동군 용궁면 무지리(同郡龍宮面舞紙里) 김수곤(金守坤)이가 자전차를 타고 가다가 동방향을 것고 잇든 동면 송하리(同面松河里) 장성준(張成俊)의 모친 강씨(姜氏)(六一)와 충돌되어 현장에 넘어저 혼도된것을 부근 사람이 응급구호를 하여보앗으나 아무 효력이 없이 동일 오후 三시경에 절명하엿다는데 가해자 김수곤은 즉시 예천경찰서(醴泉署)에서 취조중이라 한다。

小兒一名燒死

【김천】 경북 김천군 대항면 향천동(金泉郡代項面香川洞) 엄성일(嚴聖日)의 손자 수봉(壽鳳)이란 금년 세살 된 어린아이는 지난 二十二일 오전十一시경 그이웃 이춘실(李春實)의집에 가서 아모도 없는틈을 타서 부엌에서 불작난을 하다가 불을 내여놓고 겁결에 뛰여나오다가 이웃사람이 「불이야」하고 뛰여 외치는바람에 다시 안으로 뛰여 들어가서 맹렬히 타는 불길에 참혹히 타죽엇다 한다。 이춘실의 집은 전소하엿는데 손해는 약五十원에 달한다고 한다。

臨農期에雪飛하는 小作調定卅九件

그중三건은 화해되어해결 群山法院提出統計

【군산】 파종기를 전후하야 군산지청에 접수된 소작조정신청이 지난 二十三일까지 누계三十九건에 달하엿다고 한다。 지난에 거듭하는 풍수해와 여러가지로 곤란을 받아오든 농민들은 기아에 방황하는 一반 빈농가에서는 금년을 기다리는 유一한 생명선인 소작권까지 또다시 박탈 당하게되엇음으로 그와같이 법에 호소를 기다리게된것이라는데 그중 三건만 화해되엇다 한다。

甲板上에서 水夫長을刺傷

【진남포】 진남포항에 입항하엿든 청산환(靑山丸)은 지난 二十二일 오후十一시경 동항을 출항하야 신의주(新義州)로 항해중이든바 진남포항에서 얼마 멀지아니한 저도(猪島)부근을 통과할지음에 동선수부 송본국웅(水夫 松本菊雄)과 수부장 정광팔길(水夫長 正光八吉)은 돌연히 싸움이나 전기 송본은 품엇든 길이 약四촌 되는칼로 정광의 어깨를 무수히 난자하야 생명이 위독하게 되엇으므로 즉시 전기 청산환은 다시 진남포로 입항하야 피해자를 도립진남포의원에 입원치료중이고 가해자는 남포서에서 방금 엄중취조중이라고 한다。

赤道 (103)

玄鎭健 作 / 李靑田 畵

삶과 죽음 (四)

강바람은 우르르 무엇을 묻어 트리는듯한 우렁찬 음향을 내며 불어 닥치엇다。 행당 그러케 부인 철교우를 거치정 없이 휩쓸며 어둠속에 처어 검센바람과 순심에 채이고 쥐어질리는듯이 몸뚱어리가 치다가 게거품을 흘리고 부서진다。

하며 비명을 질르며 새로운 제물을 향해 사나운 손짓을 하는듯 하다。

은주는 아찔하엿다。 쇠난간을 짚은 가녀린 팔이 휘청하고 넘어갓다。 와하고 은주에게로 몰려드는 바람은 이 불상한 희생의 갈길을 재촉하는듯이 떠다 밀리는듯 하다。

삶과 죽음의 一순간!

은주는 아직 정신을 차렷을때 제몸은 아직도 난간이쪽에 끌티리 지경을 발견하엿다。

그는 한발 자욱을 떼엿다。 암만해도 제 죽을 꼿이 못되는듯이。

그는 또 아까 모양으로 난간을 부여잡고 한거름 걷고 쉬고 두거름 걷고 쉬엿다。 쉬는곳 마다 밑을 나려다 보앗건만 제몸 떨어질만한 자리를 찾지 못하엿다。

손 밑에서 싸늘한 쇠난간이 끝낫다。 그는 다리를 건너온것이다。

은주는 깜짝 놀란듯이 몸을 돌처서서 다시금 쇠난간을 쓸며 급한듯이 오든길을 도루걸엇다。 새로운 결심과 용기가 그를 채족질하는듯 하엿다。

저멀리 보아야 꿈결 같이 떠올랏다。 푸른 남산등성이엔 갈다란 전등불人줄이 서리를 친듯 하다。

—저속에는 우리 희표도 잇구나 우리 집도 잇구나—

은주는 안개 자욱한 속을 시름없이 바라보며 몹시 이런 생각을 하엿다。 법름 법름한 자기집과 새쪽지같이 구부정하게 얽개 틀리 희표 집봉이 서어하게 보이는듯。

—집에도 다시 못 가보고, 희표도 다시 못 보고—

인물의 때이 일시에 풀리엇다。 눈물에 흐린 눈 아래 구비치는 물결도 구름송파같이 멍울멍울 하다。 구슬같은 눈물은 밑도 없고 끝도 없는 어둑한 강물이지로 연거퍼 구을러떨어젓다。

제가 써 두고 나온 유서가 마음에 키이엇다。

오빠!

혼인은 아모데도 생각지말아요 여해는 집봉에 종하고 쉬훈 미워요。 하멀 원수에게로 시집을 가시는오빠가 야속합니다。 저는 죽어요。 지금 한강으로 가는길이야요。 부디 안녕히 게서요。

말은 비록 간단하나마 제 마음에 쭈긴 원한과 슬픔과 분노를 그대로 쏟아 놓은것이엇다。

—유서까지 써놓고 안죽으면—

은주는 다시 생각하엿다 그 정도 줄은 보답 터한 처음이엇다。 꼬릿이엇다。

눈을 꽉감엇다。 무슨으로 잔뜩 난간을 부여잡고 몸을 넘기라는 순간! 멀지 않은 앞길에서 뽕 뽕 하는 자동차 소리가 들리엇다。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번개같이 꿈속 같은 머리속에 번쩍 하자 은주의 몸은 팔랑개비 모양으로 난간을 휘여 넘엇다。 그서슬에 난간을 잡앗든 두 손도 떨어젓다。

清津靜山學院 新築落成式

當日同情金百卅餘圓

【청진】 청진부 포항동에 잇는 정산학원은 요사이 四十여건평에 신교사를 신축하고 지난 二十二일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하엿는데 당일 당석에는 남녀내빈측으로부터 축하를 표하는 의미에서 최하 五十전을 위시하야 동정의연금을 내여서 그금액이 一백三十여원에 달하엿다 한다。

동 학원은 경성 친목회(親睦會)의 사업으로 소화六년 四월에 창립되어 당시는 겨우二、三十명의 생도를 수용하여오든바 경영자 강승희(姜昇熙)씨등 제씨의 부절의 노력으로 인하야 현재 三백여명의 남녀생도를 수용하고 잇어 날로 발전되어간다고 한다。

咸興春季淸潔日割

五月三日 山手町、昭和町、中央町、日生町、東雲町、曙町、出雲町、驛前町、錦町、黃金町 ▲四日 榮町、大和町一二三丁目、本町一二三丁目 ▲七日 住吉町、萬歲町、有樂町、知樂町、城川町一丁目、黃金町一丁目、西上里 ▲八日 沙浦町、大和町四丁目、本町三四五丁目、城川町二三四丁目 雨天順延